

공무국외 연수 보고서

2013. 8. .



순천시의회



목 차

□ 연수개요	1
--------------	---

□ 세부연수내용

1. 사가현청, 현의회	3
2. 사가시청, 사가시의회	4
3. 도스시청 , 도스시의회	5
4. 사가현의 관광안내판	8
5. 사가성	9
6. 사가시, 도스시, 가라쓰시 농산물직거래장 ‘미치노에키’	10
7. 가라쓰시의 반찬전문 가게 ‘츠케모노(반찬)’의 ‘김치’판매장	12
8. 이마리시 아리타야키(도자기)박물관과 체험공방	13
9. 가라쓰시의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14
10. 순천만과 연계하여 아리아케 갯벌	16

1. 연수배경

- 2011년부터 사가현과 전라남도는 우호조약을 맺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가현은 정원박람회장 안에 사가현 정원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 순천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되어 8월 16일~17일 개최되었던 정원박람회장 '사가현의 날' 행사에 사가현에서 27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 사가현은 특별히 도자기 산업이 유명해서 전남 강진군과 교류관계에 있고, 엑스포 개최로 인해 여수시의회와도 의회 교류가 행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 순천시와는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2. 연수목적

- 6박 7일의 연수기간동안 사가현의 사가시, 도스시, 이마리시, 가라쓰시의 주요 시책사업과 관광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명한 직거래장터 '미치노에키'를 방문하여 성공비결과 우리지역에 벤치마킹할 부분을 고민해보았다.

3. 연수기간

- 방문기간 : 2013년 8월 4일 ~ 월 10일 (6박 7일)

4. 연수국가

- 방문국 : 일본 사가현 (사가시, 도스시, 이마리시, 가라쓰시)

5. 연수인원

- 방문자 : 순천시의회 유혜숙의원

6. 연수일정

1. 사가현청, 현의회
2. 사가시청, 사가시의회
3. 도스시청 , 도스시의회
4. 사가현의 관광안내판
5. 사가성
6. 사가시, 도스시, 가라쓰시 농산물직거래장 '미치노에키'
7. 가라쓰시의 반찬전문 가게 '츠케모노(반찬)'의 '김치'판매장
8. 이마리시 아리타야키(도자기)박물관과 체험공방
9. 가라쓰시의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10. 순천만과 연계하여 아리아케 갯벌

1. 사가현청, 현의회

방문 첫날 사가현청을 방문하여 현의회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6박7일 체류 기간동안의 협조요청을 하였다.

현의회의장님은 '사가현의 날' 순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셨다.



사가현의회 의장님과 면담후 기념촬영

2. 사가시청, 사가시의회

사가시는 사가현 남동부에 위치한 현청소재지로서 면적은 431.42km, 인구는 약 24만명으로 우리 순천시 인구보다는 약간 작았다. 사가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과 면담을 통해 연수협조를 요청했다.



사가시청 민원실 풍경



사가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과 면담후 기념촬영

3. 도스시청 , 도스시의회

도스시는 인구 8만정도의 아주 작은 소도시이다.

특별히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없다보니 대신 도스시에서 '사간도스'라는 프로 축구단을 만들고 거대한 잔디축구장을 만들어 전지훈련장으로 도스시를 찾도록 활성화 시키고 있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를 지낸 윤정환선수가 '사간도스'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하여 창단 18년동안 2부리그에 머물던 축구팀을 취임1년만에 1부리그로 승격시킨후 도스시의 스타감독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축구장을 크게 만들어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성공사례로 꼽힌것을 봤는데 도스시가 축구장도시로 유명한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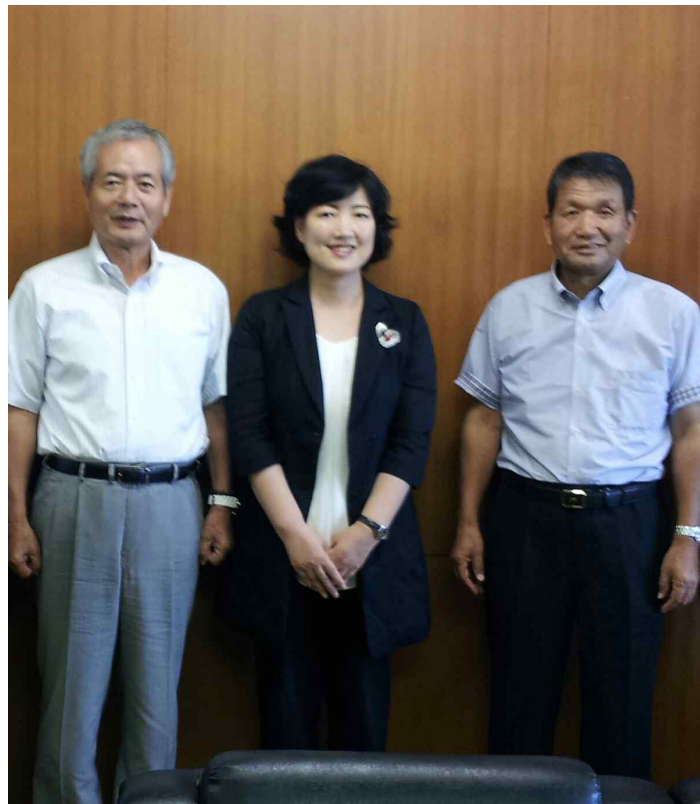
윤정환감독은 30분을 기다려 잠깐 만나 인사는 나눴는데 너무 바빠 기념사진까지는 못찍어 아쉬웠다.



도스시청 전경



도스시 시장님과 면담후 기념촬영



도스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과 면담후 기념촬영



‘사간도스’ 축구팀의 자연잔디 홈구장 전경

4. 사가현의 관광안내판

도자기로 꾸며진 사가현 관광안내판이 인상적이다. 사가현이 도자기로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휴게소에 지역의 관광안내가 지도로 그려져서 알기쉽게 해놓았다는 점이 무척 이색적이면서도 보기좋았다.

6박 7일의 일정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사가현 원예조경협회 구보회장님과 우이케부회장님과 함께 기념촬영하였다.



도자기로 꾸며진 사가현의 관광안내판 앞에서 연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원예조경협회 구보회장님과 우이케부회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5. 사가성

사가현 사가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성터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일부만 남아 현존하고 있으며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옛 성터 자리에는 현청, 방송국, 미술관, 박물관, 공원등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있으며 사가현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있어 상징적으로 방문했다.



사가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가성



담당자로부터 사가성 내부 설명을 들었다

6. 사가시, 도스시, 가라쓰시 농산물직거래장 '미치노에키'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농촌경제의 활성화는 어느나라나 중요한 화두다. 일본 전국에 퍼져있으며 갈수록 인기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 '미치노에키'를 방문했다. '미치노에키'는 주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운영비 12%를 제외한 88%는 생산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치노에키'매장마다 농산물 위에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등을 붙여놓아 더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농촌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같았다.



미치노에키 전경



생산자의 이름과 사진이 농산물 위에 붙어 있다

7. 가라쓰시의 반찬전문 가게 ‘츠케모노(반찬)’의 ‘김치’ 판매장

밥에 먹는 반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반찬들만 모아 일본말 ‘츠케모노(반찬)’라는 유명한 가게가 있어 방문했다.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반찬들과 시식코너등을 갖추고 있었고, 특별히 한국의 김치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었다.

쌀의 소비를 늘이기위해서는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의 보급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반찬가게도 관광상품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하여 관광상품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츠케모노 전경



츠케모노의 내부모습



츠케모노의 김치판매대

8. 이마리시 아리타야키(도자기)박물관과 체험공방

사가현은 특별히 도자기산업이 유명해서 전남 강진군과 교류가 있고, 이마리시의 아리타야키(도자기)의 원조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공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고 하여 해마다 한국에서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원혼을 달래는 천도의식까지 거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마리시 도자기박물관 근처에는 도자기를 직접 구워파는 가마와 도자기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어 하나의 도자기타운을 연상시켰다.



아리타야키 박물관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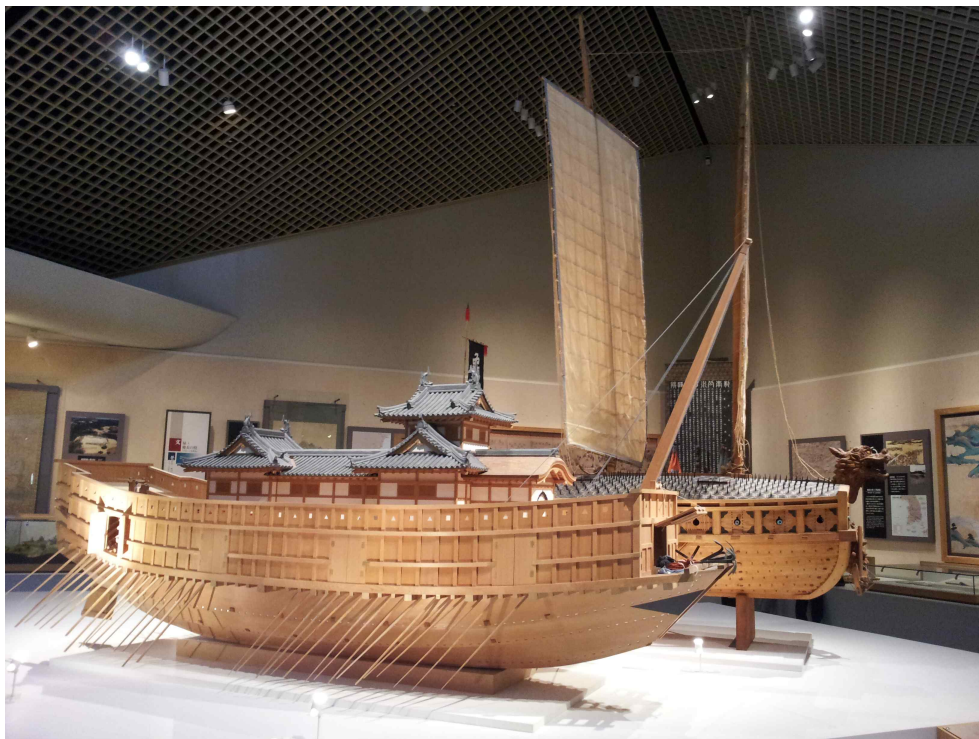
직접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가마

9. 가라쓰시의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나고야성박물관은 사가현이 주도하여 1993년 건립되었으며 일본의 다른 박물관에 비해 유독 한국관련 전시물이 많았고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조형물과 한글팻말들이 인상적이었다. 임진왜란을 ‘잘못된 침략전쟁’이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몇 안되는 일본의 박물관(전시시설)이다.

2007년~2008년에 걸쳐 순천시 신성포에 위치해 있는 왜성복원사업 할때 사가현 가라쓰시 나고야성박물관 과장이었던 다카네 데즈로씨가 참여하여 양국의 공동작업으로 했던 인연이 있어 방문일정에 넣어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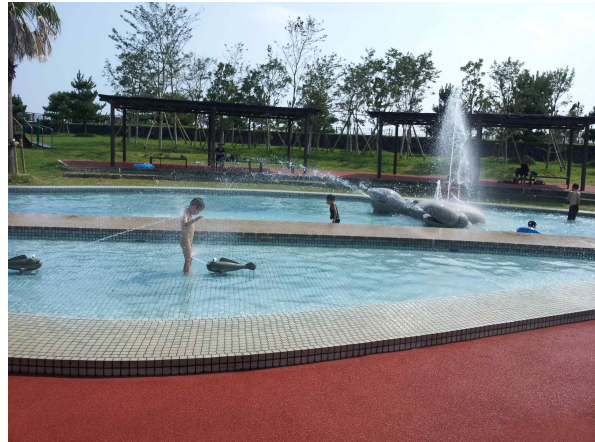
10. 순천만과 연계하여 아리아케 갯벌

아리아케해는 전체 평균 수심이 20m이고 갯벌면적은 3500ha로 일본 최대 갯벌이다. 갯벌의 모양은 순천만과 비교했을 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의 느낌이었고 대신 주변에 가족단위의 피크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아 관광객들을 맞고 있었다. 아이들 물놀이를 위한 공원느낌의 시설이 되어있어서 2년전에 방문했던 나고야시의 후지마에 갯벌과 비교했을 때 갯벌의 모양은 비슷했지만, 놀이시설을 겸비한 유원지같은 느낌이었다.

아리아케 갯벌의 주변 놀이시설을 보면서 우리시에서도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순천만의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되었듯이, 자연환경의 보호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리아케 갯벌 전경



아리아케갯벌 옆에 위치한 놀이공원